글로벌 증시 '주춤'… 주식형펀드 수익률↓

주간펀드동향

이탈리아發 리스크에 국내외 하락세

이탈리아발 정치혼란에 글로벌 증시가 주춤한 탓에 국내외 주식형펀드 수익률이 모두 하락세를 기록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지난 한 주(5월25~31일)간 전주 대비 1.74% 하락한 2423.01에 장을 마감했다. 해당기간 기관은 1조7836억원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견인했다.

선진국 주식시장을 반영하는 모건스탠리캐피털지수(MSCI) 월드인덱스(World Index)는 전주 대비 1.17% 하락했고, 신흥국 주식시장을 반영하는 MSCI EM 지수는 전주 대비 1.26% 하락한 1120.71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탈리아발 정치 혼란이 가중되면서 전 세계 증시가 급락하고, 금리가 급등하는 등 불안감이 확대된 영향이다"고 해석했다.

해당기간 국내 주식형펀드는 미·중간 무역갈등이 재고조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 강화로 1.40% 하락했고, 순자산은 8500억원 감소했다.

해외주식형펀드는 0.26% 하락했다. 지역별 분류에서는 인도(3.40%), 친디아(2.95%), 아시아퍼시픽(ex_J)(0.81%)에서 비교적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유럽(-2.08%), 중남미(-5.79%), 브라질(-7.39%) 펀드는 동일 기간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익률을 보였다. 다만 이탈리아 리스크가 실제 이탈렉시트(ITALY+exit)로 연결될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여 불안한 투자심리가 다소 완화된 탓에 순자산은 10억원 늘었다.

한 주간 국내주식형에서는 액티브주식중소형 유형인 '현대인베스트먼트로우프라이스중소형주증권자투자신탁 1(주식)C3'(2.99%)이 가장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고, 신흥아시아주식 유형으로 분류되는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 2(H)(주식)종류A'(4.27%)가 해외주식형펀드 중 수위를 기록했다. /손엄지 기자

지난 5월 31일 KB증권 여의도 본사에서 열린 '제2기 온라인서비스 고객평가단 발대식'에서 윤경은 사장이 고객평가단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증권

KB금융, 제2기 온라인서비스 고객평가단 발대식

KB증권은 최근 제2기 온라인서비스 고객평가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온라인서비스 고객평가단'은 KB증권의 신규 온라인서비스와 콘텐츠를 고객의 시각에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찾아내는 온라인 고객패널제도로, 2017년 '제1기'를 시작으로 매년 온라인서비스 고객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다.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디지털 마케팅 전담조직인 마블 랜드 트라이브(M-able Land Tribe)는 애자일(Agile·기민한) 방식을 통해 고객과 보다 긴밀하게 논의하고, 신속하게 의견을 반영하며 고객 가치 창출에 힘쓰고 있다.

이처럼 HTS·MTS의 사용 편의성 개선 및 디지털 자산관리센터 컨텐츠 개선 등 고객평가단이 제안한 아이디어와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한 결과 '고객 만족도 향상'이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제2기 온라인서비스 고객평가단은 온라인 거래에 익숙하고 투자경험이 풍부한 고객 30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온라인 거래채널 체험 및 개선의견 개진 ▲온라인서비스 고객인터뷰 및 설문조사 ▲월 1회 정기토론회 참석 등 약 6개월간 KB증권의 온라인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문호 기자

선거철 맞아 휴식기 들어서는 분양시장

분양캘린더

6월 첫째 주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분양시장이 잠시 휴식기에 접어들 전망이다.

3일 부동산 전문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6월 첫째 주에는 전국 5곳에서 3275가구(오피스텔·임대 포함, 행복주택 제외)에 대한 1순위 청약이 이뤄진다. 당첨자 발표는 12곳, 계약은 16곳에서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전국 4곳에서 개관한다.

분양물량이 적은 6월 첫째주지만 수도권에서 눈여겨 볼 만한 브랜드 아파트가 분양을 앞두고 있어 눈길을 끈다.

서울 지역에서는 GS건설이 영등포구 신길뉴타운8구역에 '신길파크자이'를 공급할 계획이다. 단지는 재건축 규제 속 풍선 효과가 기대되는 단지로 분양 전부터 큰 관심을 얻고 있다.

경기 지역에서는 현대건설이 군포시 금정동 보령제약부지에 들어서는 주거복합단지인 '힐스테이트 금정역'을 분양한다.

현대건설은 오는 7일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689번지 일원에 '힐스테이트 금정역'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지하6층~지상 49층, 5개동(오피스텔 1개동 포함), 전용면적 72~84㎡ 아파트 843가구와 전용면적 24~84㎡ 오피스텔 639실 등 총 1482가구 규모다. 단지는 지하철 1·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이 가까운 역세권이다. 생활편의시설로는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백화점 등이 있다.

같은날 신세계건설은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동 349-15번지 일원에 '빌리브 울산'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지하 5층~지상 29층, 전용면적 51~84㎡ 아파트 405가구와 전용면적 53~64㎡ 오피스텔 162실 등 총 567가구 규모다. 단지 인근으로는 함월초, 복산초, 성신고 등 여러 학교가 있다. 서덕출공원, 학성공원 등 크고 작은 근린공원도 단지 주변에 위치한다. /정연우 기자

재개발의 힘, 아현 뉴타운의 재발견

서울 마포구 일대 땅값 상승률 1위
더블역세권에 서울역 등 진출 쉬워
재건축보단 재개발 수요자 증가세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 마포구 아현1구역(가칭). 주택들이 빼곡히 자리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일대 땅값 상승률이 25개 자치구 가운데 1위를 기록함에 따라 '아현뉴타운'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 개별공시지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땅값 상승률은 6.84%로 전국 평균인 6.28%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중 마포구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11.89% 올라 서울 25개 자치구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서초구(8.76%), 용산구와 성동구(8.14%), 강남구(7.8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은 정비사업(마포아현1-4구역, 용산한남3재정비촉진지구)과 공공주택지구(서초우면동, 신원동) 사업시행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지역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아현 1구역(가칭)'은 현재 재개발 초기 단계다. 구역 지정을 위해 올해 가을 주민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다.

중개업소 관계자는 "현재 평균가격이 3.3㎡당 6000만원에 형성돼 있는데 구역 지정이 되면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큰 곳이고, 지하철 2·5호선 더블역세권을 형성한 데다 서울역, 광화문, 여의도로 진출입이 쉽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만 받으면 재개발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재개발이 진행돼 새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민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3일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아현동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3.3㎡당 2432만원에서 3501만원으로 올랐다.

아현3구역에 지어진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의 경우 전용 59㎡가 10억2000만원, 84㎡는 13억원에 매매가격이 형성돼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4년에 입주를 시작했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젊은층의 수요가 높은 곳이다"며 "입주민들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매물을 팔려고 내놓지 않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아현 1-3구역에 들어선 '아현아이파크'는 전용 59㎡가 9억원, 84㎡는 10억5000만원에 매매가격이 형성됐다.

아현 4구역에 지어진 '공덕자이'의 평균 매매가는 전용 59㎡가 9억원, 84㎡가 13억원이다. 이 아파트 단지는 지난 2015년에 들어섰다.

안명숙 우리은행 WM자문센터 부장은 "초과이익환수제로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시장에 눈을 돌리는 수요자가 많아지고 있다"며 "지가상승은 줄곧 아파트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마포구는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 많다는 점과 교통이 좋고, 홍대상권이 상수동과 연남동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국내 육계업계 4개社의 주요 재무제표 및 영업실적〉 (단위: 십억원, 배, %)

종목명	시가총액(십억원)	현재주가(원)	2017					2018				
			매출액	YoY	영업이익	YoY	영업이익률	매출액	YoY	영업이익	YoY	영업이익률
하림	322.1	3,705	867.3	5.0%	15.1	-11.5%	2.1%	177.1	-5.7%	-8.4	적자전환	-4.7%
동우팜투테이블	102.8	3,980	230.8	-2.1%	16.8	73.4%	7.3%	51.0	-0.8%	1.0	-72.4%	2.0%
체리부로	99.2	3,560	361.3	14.9%	24.6	-3.9%	6.8%	68.5	-9.2%	-1.1	적자전환	-1.6%
마니커	98.0	840	254.6	10.8%	6.9	흑자전환	2.7%	65.0	15.8%	-3.3	적자전환	-5.0%

/자료=리서치알음

치맥·삼계탕의 계절… 닭고기 관련주 '주목'

株라큘라의 종목

육계업체 관련주

월드컵·삼복시즌 소비량 증가 전망
최선호株로 '동우팜투테이블' 꼽아

"러시아 월드컵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월드컵은 심야시간 경기가 많아 야식 강자인 치킨의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음 최성환 수석연구원은 3일 본격적인 더위를 앞두고 육계 업체들의 최대 성수기가 도래한 가운데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저평가돼 있어 적절한 투자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월 2658원을 기록했던 국내 육계가격은 지난 1분기 1385원까지 급락했다.

조류독감(AI) 피해로 살처분이 많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감염피해가 적어 공급물량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육계가격 하락으로 업체들의 외형축소와 마진률 감소로 이어졌고, 관련 종목들의 주가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연구원은 "2~3분기 최대 성수기를 앞두고 육계가격의 반등이 진행될 것"이라며 올해는 월드컵 특수까지 더해져 업황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통상 6월부터 8월은 삼복과 프로야구 시즌, 피서 등으로 육계 업계의 최대 성수기다. 여기에다 이달 중순 시작되는 러시아월드컵은 오후 11시~12시 경기가 많아 치킨 수요가 급증할 것이란 판단이다.

실제 최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이후 월드컵이 없었던 해의 6~7월 육계 도축량은 전년보다 평균 2.9% 증가한 반면, 월드컵이 개최된 해에는 9%에 달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관련 업체들에게는 긍정적이다.

사료가 원가의 30%에 달하는 육계업체는 주원료인 대두박, 옥수수 등 곡물을 모두 수입하기 때문에 환율과 국제 곡물가격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올해 옥수수의 평균 국제가격은 소폭 올랐지만 원·달러 환율이 6.2% 하락(원화값 상승)하며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한국인의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이 주변국들에 비해 여전히 적다는 점도 향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 연구원은 "한국인의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2007년 8.6kg 수준에서 지난해 13.6kg 가량으로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미국, 홍콩, 싱가폴 등의 1인당 소비량의 30%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리서치알음은 관련주인 하림,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등에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특히 이 가운데에서도 지난 1분기 흑자를 달성하며 우월한 재무구조와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동우팜투테이블을 최선호주로 꼽았다.

동우팜투테이블은 닭가공 전과정이 계열화된 육계 전문기업으로, 국내 2위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최 연구원은 "지난해 실적 기준 PER(주가수익비율)이 5.5배에 불과하며, 무차입 경영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1분기 말 기준 보유한 현금성 자산도 650억원에 달해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